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2017년 교구장 성탄 메시지



## 성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버림받고 쫓겨난 운명을 한탄하며 주저앉아 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몸소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요한 1,14 참조) 이렇게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새로운 삶을 위해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또 다른 성탄의 의미가 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오늘 누추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누추한 마구간은 죄로 물든 우리 자신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세상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서는 오늘 또다시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십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던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내 안에 아

---

기로 태어나셨으니 나는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레오 대 교황) 이러한 의미에서 성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한 1,12 참조) 예수님 덕분에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마 8,15; 갈라 4,6)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느님의 아들이 누리는 모든 상속까지 함께 얻어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로마 8,17 참조)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고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태어나시게 되면 이렇게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로 놀라우리만큼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성탄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초대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움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 안동교구는 교구설정 50주년(2019)을 앞두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묵시 21,5)는 말씀아래 연차적으로 가정의 쇄신(2017년), 본당의 쇄신(2018년), 교구의 쇄신(2019년)이라는 사목목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쇄신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쇄신 운동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 안에서 교구의 고유한 모습을 되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쇄신 운동은 ‘구세주 아기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성탄의 초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교구설정 50주년을 앞두고 교구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을 염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전 교구민의 간절한 바람이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로 시작되는 2018년은 본당 쇄신의 해입니다. 우리 본당의 쇄신을 위해 우리 각자가 무엇을 어떻게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인지 기도하면서 함께 찾아보는 것도 올해 성탄을 뜻있게 보내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올해 성탄절이 ‘의미 있는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주님 성탄의 기쁨이 더욱 풍요로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성탄의 초대를 거절하지 맙시다.

2017년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



천주교 안동교구장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주님의 종이오니



오늘 주일로 대림시기가 끝나고, 오늘 밤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를 봉헌합니다. 제대 앞에 켜져 있는 4개의 대림초는 구세주를 기다려 온 인류의 오랜 기다림을 나타냅니다. 그동안 성탄을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바빴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죽음에 다다른 인류에게, 하느님께서서는 구원계획을 예고하시며,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1독서에서 다윗 임금은 하느님께 영원한 왕좌를 약속 받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왕좌를 차지할 다윗 가문의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국의 분열과 멸망을 보면서도, 약속된 메시아는 모든 민족을 구원할 분임을 알게 됩니다.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하느님께서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민족들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 이 신비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오랜 세월 감추어 있던 구원의 신비가 주님 성탄으로 온 세상에 환히 드러납니다. 하느님의 구원은 주님 성탄의 신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주님의 성탄을 예고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순종으로 구세주의 탄생이 이 세상에 실현됩니다.

---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성모님의 순종을 본받아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도록 초대하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천사의 아킴으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받아들여,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순명합니다. 우리도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성탄은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으로 인류는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삶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성탄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가장 확실한 징표입니다.

그동안 성탄을 잘 준비하느라고 성탄 트리와 구유도 만들고, 죄의 용서를 위해 고해성사도 받고, 이웃에게 따뜻한 도움도 주고, 여러 가지로 분주했습니다. 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 이제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분들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모님처럼 굳은 신앙을 갖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계림동 본당 전장호 프란치스코 신부



## 대림 제4주일 전례

###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대림 제4주일입니다. 제대 앞에 있는 네 개의 대림초는 구세주를 기다려 온 인류의 오랜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오랜 세월 감추어져 있던 구원의 신비가 주님 성탄으로 온 세상에 환희 드러나기 위해, 성모 마리아의 순종과 응답이 필요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계획이 온 누리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도 성모님처럼 주님의 도구로 쓰임에 주저함 없이 응답하리라 결심하며 이 전례에 참례합니다.

**입당성가 :** 93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 본기도

† 주님, 천사의 아킴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사무엘기 하권 7장 1절-5절.8절-12절.14절.16절

**안 내 :** 나탄 예언자는 다윗 임금에게 주님께서서 네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실 것이라 전합니다.

**묵 상 :**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듯 구름이 세상에 의로움을 뿌리고, 땅 위에 구원이 피어나게 하시는 주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괴롭힘 당하지 않는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화 답 송 :** ◎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2독서 :** 로마서 16장 25절-27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로마인들에게 하느님께서서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가 예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묵 상 :** 하느님의 구원은 강생의 신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모습을 드러내는 이 신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해 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1장 26절-38절

**강 론** : ‘주님의 종이오니’(1-2쪽)

**예물준비성가** : 215번 ‘영원하신 성부’

**영성체성가** : 163번 ‘거룩한 성체여’

**영성체 후 묵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에  
성모님은 몹시 놀라며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침묵>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며 의문을 갖지만,

‘하느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씀에

곧바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순명하십니다.

<침묵>

우리도 늘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성모님처럼 순명의 응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97번 ‘구원의 메시아’



##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

###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성탄 대축일입니다. 이 밤에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어둠속에서 헤매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적막에 잠긴 고요한 이 밤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빛나는 거룩한 밤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서는 말없이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우리 또한 가난하고 겸손함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겠습니다.

**입당성가 :** 101번 '글로리아 높으신 이의 탄생'

### 본기도

† 하느님,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거룩한 밤을 밝혀 주셨으니, 저희가 세상에서 이 빛의 신비를 깨닫고, 천국에서 그 빛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 제1독서 : 이사야서 9장 1절-6절

**안 내 :** 이사야 예언자는 어둠속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며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리라 예언하십니다.

**묵 상 :**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화 답 송 :**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제2독서 : 티토서 2장 11절-14절

**안 내 :**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묵 상 :** 우리 안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과 사랑을 나눔으로써 예수님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야겠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2장 1절-14절

**강 론** : “교구장 성탄 메시지”(1-3쪽)

**예물준비성가** : 105번 ‘사랑의 아기 예수’

**영성체성가** : 103번 ‘오늘 아기 예수’

**영성체 후 묵상**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은  
매년 오는 연례행사나 사람들과 인사를 전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대림기간 동안 하느님의 사랑 앞에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용서를 구한 우리가 비워지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하느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불을 밝혀 주시기를 청하는 시간입니다.

<침묵>

신앙을 허락하고 자비로 불러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신비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예수님께서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기를 청하는  
성탄절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84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 주님 성탄 대축일 낮미사

###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성탄 대축일입니다. 하느님은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신 분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가운데 사시면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사람이 되신 말씀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이 전례 중에 은총을 청합니다.

**입당성가 :** 102번 '어서가 경배하세'

### 본기도

† 하느님, 저희를 하느님의 모습으로 오묘히 창조하시고 더욱 오묘히 구원하셨으니, 사람이 되신 성자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 제1독서 : 이사야서 52장 7절-10절

**안 내 :**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기쁜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래합니다.

**묵 상 :** 우리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들에게 발길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장 힘겨워 하는 이들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 답 송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제2독서 : 히브리서 1장 1절-6절

**안 내 :**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묵 상 :** 자기 자신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신앙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알렐루야.

---

**복 음 : 요한 1장 1절-18절**

**강 론 :** “교구장 성탄 메시지”(1-3쪽)

**예물준비성가 :** 100번 ‘동방의 별’

**영성체성가 :** 104번 ‘사랑하올 아기 예수’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께 탄생할 자리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옆에 앉아 있는 형제, 자매, 나의 가족,  
나와 늘 만나는 사람, 아니 나와 뜻이 맞지 않는 그에게  
자리를 내어 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따스한 손길과 사랑을 나누는 그 마음 안에  
예수님께 탄생 할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07번 ‘천사의 찬송’

**※ 공소사목 성금**

농암공소	100,000원	우영식님	50,000원
김용기님	50,000원	민병삼님	50,000원
쌍호공소	100,000원	김득순님	10,000원
신상공소	1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12,05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해 주세요.



## 알림

### ■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

- 방법 : 1.본당에 준비된 서명지 이용  
2.온라인을 통한 청원
- \* 신부님들께서는 공문 천안교 제2017-106호를 보시고 신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수거된 서명지는 2018년 1월 31일까지 주교회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2018년 신년인사회

- 일시 : 2018년 1월 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목성동 주교좌성당
- 주례 :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 초등부 복사단 연수

- 일시 : 2018년 1월 3일(수)14:00-4일(목)16: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첫 영성체를 한 후 복사단 연수에 참가하지 않은 어린이
- 준비물 : 미사준비, 필기도구, 세면도구, 목주, 복사복(개인별), 옷걸이, 실내화, 복사복 입고 찍은 사진 1장
- 참가비 : 1인 30,000원

### ■ 청소년 견진캠프

- 일시 : 2018년 1월 12일(금) 15:00  
- 14일(주일) 17:00
- 장소 : 문경 정보촌 유스호텔
- 대상 : 교구 내 중·고등부 견진대상자 (현 중1-고2)
- 참가비 : 1인 80,000원

### ■ 안동교구청 사목국 직원 모집

- 지원자격 : 세례 받은 가톨릭 신자(미혼), 문서편집 가능자(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운전면허 포함)
-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및 세례증명서
- 서류 접수 및 문의 : 12월 29일(금)까지 858-3114~5, kimatheo@hanmail.net
- 면접 : 서류 전형 후 개별 통보

### ■ 성령 세미나

- 일시 : 2018년 1월 5일(금) 14:00 - 7일(주일) 16:00
- 장소 : 농은 수련원
- 준비물 : 세면구(수건), 필기구, 미사준비
- 회비 : 10만원
- 신청 : 12월 31일(주일)까지  
성령쇄신봉사회 010-8447-0111

### ■ 남성 제42차 꾸르실료

- 일시 : 2018년 1월 11일(목)16:00-14일(주일)16: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 1인 120,000원
- 추천 인원 : 각 본당 3명 내외
- 신청 : 12월 22일(금)까지
- 자격 : 영세 후 3년이 경과하였거나 견진성사를 받은 분, 65세 이하
- 신청처 : 본당신부님, 꾸르실료 간사

### ■ 제85차 ME 주말

- 일시 : 2018년 1월 19일(금)19:00-21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신청마감 : 1월 8일(주일)까지
- 자격 : 혼인한지 5년 이상 된 부부, 짝교우, 비신자, 타종교인 가능, 사제, 수도자
- 문의 및 신청 : 안동ME대표부부 (010-6580-8408, 010-6500-8408)

### ■ 가톨릭상지대학교

#### 2018학년도 신입생 정모집

-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 정시 1차 모집 : 2018년 1월 6일(토) ~ 16일(화)
- 입학문의 : 교무입학처 054)851-3021, 3023  
<http://ipsi.csj.ac.kr>

### ■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 과정 : 신구약성경입문(2년)
- 방법 : 우편과 이러닝(동영상강의) 성경공부
- 원서 : <http://uus.pauline.or.kr> 바로로달
- 접수 : 1월 31일까지 / uus@pauline.or.kr
- 문의 : 02)944-0819~24/0840~2(이러닝)

### ■ 2018년 파티마유치원 교사 채용 (상주 서문동 성당)

- 자격 : 유치원 정교사
-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신청 : candida1208@hanmail.net 또는 방문
- 문의 : 054-535-4851 / 010-2529-2696

## 2018년 교구 사목활동 지침

## 교구 설정 50주년 기도문

### 본당의 쇄신을 위하여

1. 본당은 친교의 집입니다.
  - 미사 전·후 인사하기
  - 1인 1단체 가입하기
  - 반모임 적극 참여하기
  
2. 본당은 함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 성경 읽고 쓰기
  - 교구 또는 본당 교육에 적극 참여하기
  - 전례 쇄신을 위해 노력하기
  
3. 본당은 동네의 샘입니다.
  - 행사 및 교육에 비신자 초대하기
  - 사회 사목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4. 평신도 희년의 축복을 함께 나눕니다.
  - 전대사 지침 실천하기
  -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 교구에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어  
 기쁘고 떳떳한 신앙공동체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주 예수님,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아  
 저희 모두가 열린 마음과 소박한 삶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참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저희 교구를 축복하시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서로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  
 이 터에서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구게 하소서.

-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 마리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복자 박상근 마티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2017년 12월 8일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천주교 안동교구장 인준)